

美 의회는 보병용 개인장비 수입금지案을 심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미군 병사가 유럽산 헬멧을 쓴다거나 대만산 군복을 입고 브라질산 군화를 신는등의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미국인들의 가슴속에 미국의 젊은 병사들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다.

미군 병사들이 외국산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납득시키기 보다는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 것이다.

만약 국방성이 모든 피복류와 개인장비를 외국에서 조달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국방예산을 해외에 낭비하지 않으려는 정책을 외면하는 일이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국방성은 매년 2천5백억불에서 3천1백억불 정도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이 가운데 매년 해외조달에 사용한 액수는 41억불 정도에 불과하였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다른 국가들보다 방산품의 해외조달에 인색한 국가이다.

과도한 수입억제는 이러한 입법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하원의 일부 경험있는 의원들은 문제를 발단 초기부터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편협된 생각이 의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

개인장비의 해외조달 금지와 관련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성이 진정 미국의 대전차 근접무기체계를 Euromissile 사의 MILAN-2 또는 스웨덴 Bofors 사의 BILL로 대체할 계획인가, 이 유럽산 무기들이 미국산보다 우수하다고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등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획득체계 변화

국방성의 개혁주의자들이 언젠가는 1980년

대 중반과 말기에 있었던 획득체계의 변화가 가져온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경쟁, 복수공급제, 장기계약 등의 방법들을 지지해 왔다.

1985년 이후로 경쟁은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가져왔다. 복수공급제는 생산기술의 발전과 가격인하를 가져왔으며, 장기계약은 업체로 하여금 연구·개발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방성예산으로 조달케 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실제 연구·개발 비용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경쟁은 민간분야의 독창성을 위축시켰다. 일부 업체들은 결과적으로 생산계약을 따낸 업체만이 생산을 할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설계, 개발을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복수공급제는 새로운 생산자가 생산설비를 갖추는 첫해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장기계약은 일부업체에는 생산라인 변화에 방해가 되며, 미국과 나토간의 산업기반 밀착에도 장애가 된다.

그러면 어떤 조달방법이 유용하다고 해서 다른 방법들을 취소해 버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국방성은 조달전술목록을 축소하거나 단일공급제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William H. Taft IV 국방 차관은 이 문제가 아직 심의중에 있으며, 국방성이 이 문제를 수년간 더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Taft 차관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컴퓨터로 모범획득 계획안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품과 제조업체의 변수를 모두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미국의 모든 주요 헬기생산업체들이

이익을 취하게 될 美 육군의 LHX처럼 궁극적으로 주요업체들이 상호이익을 나눌수 있는 분야에서의 경쟁은 건전한 것이다.

또한 복수공급제는 최초의 생산업자가 질적으로 낙후되어 후발업체가 유사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근로자를 훈련시킬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선박건설이나 다량의 주전차를 생산하는 경우처럼 가격이 매우 비싸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생산품에 대한 소요는 장기계약이 유익하다.

차기 국방장관은 조달방법과 소요품목간의 조화를 이룰 방법은 물론 그 어느 軍도 단독으로는 단기간내에 가격인하를 이룰수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1989년 목표

새로운 행정부로 하여금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국방성의 1989년도 사업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 軍이 집요하게 수행해야할 포괄적인 조달 전략의 구상과 광범위한 구매전술의 구체화.
-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잘못된 이론들(종종 NATO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송력을 약화시키곤 하였다)을 종식시킬수 있도록 합참의장이 받아들인 해군 전략과 연합전략의 양립 실증.
- 외국으로의 방산기술이전에 대한 기준 통합. 즉 국방성과 상무성 및 국무성간에 이전가능품목과 제한품목에 대한 의견 조정
- 공동사업 및 기타 상호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업체 및 외국업체(미국은 19개국과 MoU를 체결하였다)들은 각자의 경험과 특성, 국제방산업계내의 로비활동등을 억제함으로써 각자가 지닌 장점들을 최

대한으로 발전시킬 방법을 강구하게 됨을 인지해야 함

• 미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소요와 비상사태시에 이 산업기반을 추가동시키는데 필요한 대응시간을 위한 소요를 분리함

이 산업기반이 신속한 무기공급을 해주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분야의 국방비 지출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의회에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강조

또한 국방성은 산업기반의 개선이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지적해야 함

• 미 육군으로 하여금 對장갑분야의 핵심으로서 보다 신속히 임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FAADS하에 통합된 방공역할처럼 일련의 무기체계들을 조화시키게 함.

육군은 조기에 DRAGON을 대체할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업체는 AAWS-M과 AAWS-H를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시작할수 있을 것임.

•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이것이 누설되어 왜곡보도되기 전에 완벽한 통제 실시.

• 미국과 소련의 전략군을 살펴보면 공격에서 방어로의 변화가 분명한. 이로부터 생겨나는 방어와 대응전술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이전효과 검토.

예를 들어 공중 및 지상발사 대장갑무기체계, 간접 대전차탄두, 전방방공체계의 부속체계등의 전개를 들수 있음.

• SDI 연구결과중에서 재래식 對미사일 및 방공임무에 적용할수 있는 것을 수집.

• 급성장하는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방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을 발전시킴.

차기 대통령은 국내 및 국제안보를 함께 주시하고, 새로운 해결책 모색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MILTECH 88/11>